

# 大衆文化의 우리말글 誤用

許 椿\*

## 차 례

- |             |
|-------------|
| I. 序論       |
| II. 本論      |
| 1. 大衆 歌謠·歌曲 |
| 2. 映畫       |
| 3. 廣告·商品名   |
| 4. 看板·標識    |
| 5. 用語       |
| III. 結論     |

## I. 序論

대중 문화가 音樂 특히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도 대중 문화의 우리말글 구사는 우리말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말이 많아 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별 생각 없이 잘못 길든 언어 습관은 고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많은 사람들이 남자 화장실의 출입문을 으레 열어 두고도 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치는 식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말)이라도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된다.

가사(시)는 작가 특유의 표현도 있고 그 작품의 정서나 운율에 알맞은 말도 있기 때문에, '푸르른 하늘' 처럼, 문법적인 잘잘못을 엄격하게 따지기 곤란한 말도 물론 있다. 그러나 특히 대중 가요에서 '설레이는 (마음)' 같은 말이 꼭 필요하다거나, 이 같은 말을 '문학적 허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레는 (가슴)' 이라며 부르는 좋은 가요도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광고의 문안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광고에는 전문 방송인보다 연예인이 주로 출연하는데, 이들의 발음이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언론 매체는 물론이고, 공익 광고나 관공서의 표지의 우리말 구사는 대체로 의심 없이 믿는 경향도 있다.

앞서 필자는 언론 매체에서 범하는 우리말글의 여러 잘못과 '표준 발음법'의 미비점, 국어사전의 문제점 등을 검토한 바 있는데,<sup>1)</sup> 이 작업의

- 
- 1) 許椿, “放送 言語의 諸問題-發音의 混亂相”, 「인문학 연구」 제6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a.  
 —, “放送 言語의 發音 檢討-連音, 硬音”, 「인문학 연구」 제7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b.  
 —, “放送 言語의 發音 問題”, 「인문학 연구」 제8집(특집호),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a.  
 —, “韓國 放送의 外來語 發音 檢討”, 「동아시아연구논총」 제11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01b.  
 —, “國語辭典의 發音 表記 補完”, 「영주어문」 제3집, 영주어문학회, 2001c.  
 —, “우리말 ‘표준 발음법’ 보완”, 「어문학」 제74집, 한국어문학회, 2001d.  
 —, “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 檢討-틀리거나 어색한 말”, 「濟州島研究」 제20집, 제주학회, 2002a.  
 —, “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틀리거나 어색한 말, 표현의 문제”, 「瀛州語文」 제4집, 영주어문학회, 2002b.  
 —, “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 論議-일(영)어의 잔재”, 「耽羅文化」 제2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2c.  
 —, “新聞의 우리말글 檢討-濟州 地域 新聞의 外國(來)語 誤·濫用”, 「인문학 연구」 제9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2d.  
 —, “우리나라 신문의 문장 검토”, 「瀛州語文」 제5집, 영주어문학회, 2003.

연속선에서 대중 문화의 우리말글을 살펴보겠다. 대중 문화의 범위는 매우 넓지만, 편의상 대중 가요·가곡, 영화, 광고·상품명, 간판·표지, 용어로 나누어 특징적인 몇 가지만 우선 적시한다.

대중 문화의 우리말글을 검토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공이 든다. 해야 할 다른 과제를 제쳐놓고 이 작업에 매달리는 일을 망설이기도 했으나, 영향력이 큰 대중 문화 문제를 계속 외면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점검한다.

## II. 本論

### 1. 大衆 歌謠·歌曲

가사(시)에는 상징과 생략이 많아 문법적인 오류를 너무 엄격하게 지적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이른바 '문학적 허용'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말에 대한 무지 또는 무관심에서 나왔다고 생각되는 잘못이 너무 많다. 특히 대중 가요는 우리 생활과 밀착되어 있어서 그 영향은 언론 매체보다 더 크다고 하겠다.

'풍변가곡'(가수:룰라)은 '바람에 변하여 기를 스치는 슬픈 노래'(00.6.15. '룰라' 멤버(member)의 설명)라는 뜻이었는데,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성립하기 어려운 말이다. 요즘은 제목 뿐 아니라 가사 일부가 영어거나, '베이비(baby)'나 '러브(love)' 같이 별 의미 없는 영어 단어를 구절 끝에 한두 마디씩 넣는 이상한 풍조가 있다. 그리고 '언젠가 끝날 수 있는 날 있잖아'(제목:꿈, 가수:엄정화)의 '있는 날'처럼 혀를 잔뜩 꼬아 외국어(영어)처럼 발음하는 걸명도 있다.

이제 좀더 세부적으로 가요의 우리말글을 짚어보겠다. 대중적으로 애창되는 노래를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나, 최근에 나온 젊은 가수의 노래를 살펴보지 못 해서 아쉽다. 가곡과 대중 가요를 따로 구분하지 않으며, 가요

제목, 가수, 작사자, 작곡자를 아는 대로 밝힌다. 가요 배열은 제목의 ㄱ, ㄴ 순으로 하고, 제목을 모르는 경우는 맨 뒤에 놓는다. 다만 '2 단어'는 효과적인 서술을 위해 가요 제목보다 해당 단어를 먼저 보인다. 방송에서 들은 것은 되도록 방송국과 일시를 표시한다. 같은 노래를, 다른 가수도 취입했거나 무대에서 다른 가수가 불렀을 때는, 필자가 들은 가수를 적는다.

### 1) 발음

노래는 가수를 따라 하기 마련이라 가수의 틀린 발음은 언중의 습관이 되어 버린다. 가수는 취입(吹入) 또는 공연 전에 국어사전을 한번 확인하는 정도의 성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발음마저 틀리는 일은 무관심과 공부 부족 탓이다. 여기 보인 예는 모두 틀린 발음이다. 흔히 틀리는 우리말 발음 유형은 필자의 다른 글에서 논의했으므로 설명이나 바른 발음 표기를 따로 보이지 않는다. 가사와 발음 중 어느 것 잘못인지 모호한 몇 경우는 일단 발음에서 보이며, 장단음은 음의 길이와 관련된 것이라 여기에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발음이 불분명하거나 발음을 필자가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일단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는 세월: 이 내 몸이 흙이[호기] 되도 내마음은 여전하리.(노래:서유석, '되도→뉘도'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내 눈물을 밟고[발꼬] 떠났지만 --- (가수:송대관)

길 잃은 철새: 길 잃은[기리른] 철새.(가수:최희준)

꽃 중의 꽃: 민족에 빛이[비시] 되어 아름답게 --- (80.9.1. TBC TV 경축 음악제 가수:혜은이)

꿈은 사라지고: 나뭇잎이[나무이피] 푸르던 날에 --- (01.7.16. K1TV '가요 무대' 가수:안다성)

날 닮은 너: 너무도 겁이[겁시] 나.(가수:임창정)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 난 평생을 못 잊을[(모)-디즐]것 같아. 너를.

(가수:나훈아, [몬-니줄])

눈물 젖은 두만강: 내 님을 신고[실코] --- (97.11.10.18:20 K1TV(?) 가수: 김정구 외 출연 가수 전원)/님 잃은[니미른] 이 사람도 한숨을 짓는 --- (01.6.18. K1TV '가요 무대' 제목:눈물 젖은 두만강, 가수:은방울자매)

당신은 모르실거야: 당신의 아픈 마음을 깨끗이[깨끄치] --- (길옥윤 사·곡, 혜은이 노래)

동물농장: 닭장 속에는 암탉이[암타기] --- (가수:썬그린)

동백 아가씨: 얼마나 울었던가[울었든가] 동백 아가씨. (백영호 곡, 이미자 노래)

마른 잎: 마른 잎[마르닙] 떨어져 길 위에 구르네. (가수:장현)

물방아 도는 내력: 밤이면 사랑방[사랑땡]에 --- (01.7.16. K1TV '가요 무대' 가수:김상배, 이 노래를 처음 취입한 박재홍은 [사랑방]이라 맞게 발음했다.)

비 내리는 고모령: 어이해서 못 잊느냐[모딘느냐], 망향초 신세 ---

비 내리는 영동교: 잊어야지 하면서도 못 잊는[모딘는] 것은 --- (가수: 주현미)

사모곡: --- 흠에[흐게] 살던 어머니. (가수:태진아)

산장의 여인: --- 풀벌레[풀버레]만 애처로이[애처로히] --- (01.9.24. K1TV '가요 무대' 가수:권혜경)

서울에서 평양까지: 서울에서 평양[평양]까지 달려 보련다[불란다]. (00.7.18. MBC TV 가수:신형원)

아빠의 청춘: 마음으로 빌어 주는 박영감[바:경감]인데 --- (가수:오기택, 01.4.23. K1TV '가요 무대'에서 가수 현철도 [바:경감]이라고 불렀는데, [방영감]이 정확한 발음이다.)

연: 고운 꿈을 신고[실코] 날아라. (조진원 사·곡, 라이너스 노래)

우리들의 이야기: 언제라도 난 안 잊을 테요[아니줄테요]. (가수:윤형주)

이정표: 길 잃은[길리른] 나그네의 나침반이냐. (01.10.3.16:50 K1TV '한국 연예 예술 대상' 가수:남일혜)

제3한강교: 당신과 나의 꿈을 신고서[실코서] --- (가수:혜은이)

지평선은 말이 없다: 차가운[차겨운] 이국 땅에 쓰러져 간 오빠를  
---(가수:이미자)

진달래꽃: 사뿐히 즈려 밟고[밭꼬] ---(가곡)

징글벨: 사랑 신고[실코] ---(가수:김상희, 다른 가수들도 대부분 이처럼 발  
음했다.)

짝사랑: 들녘에[들려게] 떨고 섰는 입자 없는 들국화.(가수:고복수)

촛불: 그대는 왜/그대는 왜/촛불을 켜[키]셨나요?(가수:조용필)

추억으로 가는 당신: 너무도 못 잊을[모디줄] 당신.(99.11.29 22:00 K1TV  
'가요 무대' 가수:주현미)

통일열차(?): --- 몸을 신고[실코]/북녘에[봉녀게] --- (가수:김미성(?))

하얀 나비: 길 잃은[기리른] 나그네는 --- (01.2.16. K2TV '콘서트 초대'  
김정호의 노래를 가수 하춘화가 부르면서.)

흙에 살리라: 나는야 흙에[호게] 살리라(제목:흙에 살리라, 가수:홍세민)

깨끗이[깨끄치] 잊어 --- (01.2.25. K1TV '열린 음악회', 가수:차태현)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97.11.9.18:10 K1TV 가수:이승철, '놀리지'를 마치 외  
국어처럼 발음하는 바람에 주한 외국인 장기 자랑에서 듣는 노래 같았다. 영어 선호  
풍조 탓인지도 모르겠다.)

## 2) 단어

작사자의 노력이 절실한 부분이다. 예전에 틀리게 쓴 말을 버릇처럼 따  
르지 말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가요임을 감안하여, 특히 예전  
가요의 말투 이를테면 '갈매기때 너울대는 저 바다는 부른다.'(제목:바다의  
교향시, 김능인 사, 손목인 곡, 김정구 노래)의 '너울대는( '너울대다'를 복수 표준어  
로 인정한 것은 1988년 이후다.)'이나, '곳은 비 나리는 이 밤도 애절구려/귀  
밑머리 쓰다듬어 맹서는 길어도 --- (제목:번지 없는 주막, 추미림 사, 이재호  
곡, 백년설 노래)', 아리랑 고개는 님 오는 고개(제목:아리랑 낭랑, 추미림 사, 김  
교성 곡, 백난아 노래)의 '나리는, 애절구려, 맹서, 님' 같은 말은 지적하지

않는다. '봄 나비 나래 위에 꿈을 실어 보았는데 ---'(제목:여로, 이남섭 사, 백영호 곡, 이미지 노래)의 '나래( '날개' 의 고어)'는 물론이고, '노을마저 지며 는 갈 곳 없는 이 내 몸.'(제목:사막의 한, 김능인 사, 손목인 곡, 고복수 노래)의 '노을( '노을'도 1988년 이후에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였다.)같이 운문에서 자주 쓰는 말 또한 마찬가지다. 정확한 말을 뒤에 보인다. 재확인하지 못한 몇 경우는 상황을 부기하였다.

(비가/날씨가) 개이고/개인: 날씨 개인 항구에 기적이 올면 ---(제목: 항구의 청춘시, 김운하 사, 박시춘 곡, 남인수 노래, 갠), 비가 개이고 산들바람이 정답게도 불면 ---(제목:나는 가아지, 손석우 사·곡, 문정숙 노래, 개고)

거치른: 거치른 타관 길에 주막은 멀다.(제목:백마야 울지마라, 강영숙 사, 전오승 곡, 명국환 노래, 거친), 거치른 두뺨 위에 눈물이 어려 ---(제목:추풍령, 전법성 사, 백영호 곡, 남상규 노래), 물지게도 제대로 못 지던 내가 거치른 혼련도 받아 넘기고 ---(제목:이 일병과 이쁜이, 조영남 사·노래, 김학송 곡), 거치른 광야에 ---(가수:양희은), 거치른 벌판으로 달려가자(제목:젊은 그대, 가수: 김수철), 거치른 길을 길을 달려왔다.(제목:남자의 길, 가수:고영준), 거치른 광야에 홀로 남겨져 ---(제목:광야, 가수:김수희)

곰곰히: 내 행복이 좌우되는 두 갈래 길이기에/두고두고 곰곰히 생각해 보겠어요.(제목:생각해 보겠어요, 김문웅 사, 정민섭 곡, 화니시스터즈 노래, 가사도 '곰곰히'로 발표되었다. 곰곰이)

괴로웁지만: 뛰고뛰는 몸이라 괴로웁지만 ---(제목:해 뜰 날, 송대관 사·노래, 신대성 곡, 괴롭지만)

굽으소서: 죄많은 뉘우침을 천만 번 굽으소서.(제목:모정, 이채주 사, 박춘석 곡, 이미지 노래, 굽어보소서)

그리웁구나/그리웁고: 아름다운 궁녀들 그리웁구나.(제목:신라의 달밤, 유희 사, 박시춘 곡, 현인 노래, 그림구나), 헤어지면 그리웁고 ---(제목:청춘고백, 손석우 사, 박시춘 곡, 남인수 노래, 그림고)

나름대로: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제목:낭만에 대하여, 가수:최

백호, '나름대로'는 단독으로 쓸 수 없는 말이다.)

날라가련만/날으고/날으는/날으게/날으면[飛] 등: 각각 '날아가련만, 날고, 나는, 날게, 날면' 이라야 맞다.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가듯이(제목:가는 세월, 가수:서유석, 아래는 틀린 말을 쓴 예인데 너무 많아 다 들지 못한다.), 날라가련만 --- (가수:김인순), 날이 새면 물새들이 시름없이 날고 --- (제목:강촌에 살고 싶네, 김설강 사, 김학송 곡, 나훈아 노래), 날으는 낙엽 따라 어디론가 가 버렸네.(제목:여로, 이남섭 사, 백영호 곡, 이미지 노래), 하얀 꽃잎 따라 별 나비가 날고 --- (제목:옛친구, 김우택 사·곡, 김세환 노래), 뭉게구름 저 편 산 너머로 기러기때 날고 --- (제목:저녁 한때의 목장 풍경, 전우 사, 김기웅 곡, 위키리 노래), 구름 속에 나비처럼 날으던 지난 날.(제목:얼굴, 심봉석 사, 신귀복 곡, 윤연선 노래), 꼬리를 흔들며 하늘을 날으는 --- (제목:연, 조진원 사·곡, 라이너스 노래), 울며울며 날으는 갈매기여 내 마음을.(98.12.21.22:20 K1TV '가요 무대' 제목:당신만을 사랑해, 노래:혜은이), 우리는 말 안하고 살수가 없나/날으는 솔개처럼.(제목:솔개, 가수:이태원), 새들은 날으게(01.6.10. K1TV '열린 음악회' 제목:철망 앞에서, 작곡:김민기, 가수:신형원·권인하(?)), 노을 진 한산섬에 기러기 날으면 --- (제목:삼백리 한려수도, 정두수 사, 박춘석 곡, 이미지 노래), 물새가 날으면 --- (제목:고향초, 가수:홍민), 갈매기 날으는 바닷가에도 --- (제목:고귀한 선물, 가수:장은하, 이 노래의 가사는 '나는' 이지만 가수는 '나르느'이라 부른 것으로 기억하는데, 재확인하지 못 했다.)

낫설은: 낫설은 타관 땅에 --- (제목:올려라 기타 줄, 노래:손인호, 이 노래가 나온지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의 가요에서 '낫설은'을 답습하고 있다. '낫선'이 노래의 맛을 더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름도 낫설은 영을 넘어서 --- (제목:대지의 향구, 남해립 사, 이재호 곡, 백년설 노래), 낫설은 타향 땅에 내가 왜 왔나.(제목:올려고 내가 왔다, 김중순 사, 김영관 곡, 남진 노래), 지금은 낫설은 나그네 되어 칠백리 고향길을 찾아왔다고.(제목:대동강 편지, 월권초 사, 임종수 곡, 나훈아 노래), 낫설은 남남간에 --- (제목:철 없는 아내, 이성재 사, 이봉조 곡, 차도균 노래), 낫설은 타향에서 의지할 곳 없는 몸이 --- (제목:우연히



정 들었네, 신지훈 사, 신성국 곡, 박우철 노래), 낯설은 카스바에서 ---/낯설은 내 가슴에 쓰러져 ---((제목:카스바의 여인, 가수:윤상), 낯설은 아쉬움(제목, 노래:진시몬)

너무: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제목:우리는, 송창식 사·곡·노래, '너무'는 뒤에 부정어가 와야 한다.)

녹슬은: 휴전선 달빛 아래 녹슬은 기찻길.(제목:녹슬은 기찻길, 김관현 사, 홍현걸 곡, 나훈아 노래, 녹슬), 녹슬은 철망을 거두고 ---((01.6.10. K1TV '열린 음악회' 제목:철망 앞에서, 작곡:김민기, 가수:신형원·권인하(?))

(김치를) 담을: 열무김치 담을 때는 님(임) 생각이 절로 나고 ---((제목:맹꽁이타령, 이부풍 사, 형석기 곡, 박단마 노래, '담근' 김치를 그릇에 '담는'다는 뜻은 아니겠다. 담글)

되도: 이 내 몸이 흠이 되도 내마음은 여전하리.(제목:가는 세월, 노래:서유석, 돼도, 가사에도 '되도'이다.)

되뇌이다: 그 사람 이름을 되뇌이다 하얏게 ---((제목:춧불 잔치, 이재성 사·곡·노래, '되뇌다=같은 말을 되풀이하다.)'가 기본형으로, '이'가 들어갈 까닭이 없다.)

(잠이) 들은: 기적도 잠이 들은 적막한 정거장.(제목:기적 소리만, 가수:배성, 든)

라구요: 라구요(제목, 가수:강산에, 라고요)

말어라: 사랑에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말어라.(제목:갈대의 순정, 가수:박일남, 물론 '말어라→말아라'인데, '울지(를) 말아라'는 '울지(를) 마(라)'가 적확하다.)

멋쟁이: 멋쟁이 높은 빌딩 ---((제목:님과 함께, 고향 사, 남국인 곡, 남진 노래, 발표 당시인 1970년대에는 '멋쟁이'가 맞는 말이다. 작사자와 가수 중 누구 잘못 인지는 알 수 없다.)

명들은: 명들은 상처를 건드리지 말아 다오.(제목:맨발로 뛰어라, 유희 사, 이봉조 곡, 남일해 노래, 명든)

(가슴이) 메입니다: 무정한 긴긴 세월 가슴이 메입니다.(제목:모정, 이채

주 사, 박춘석 곡, 이미지 노래, 멜니다)

목메이게/(목이) 메여 등: 목이 메어 불러 보는/당신의 이름.(제목:황혼의 블루스, 박춘석 사·곡, 이미지 노래), ---당신은 지금 어디 목메어 부르는 그대의 이름.(제목:먼 데서 왔수다예, 김기팔 사, 황문평 곡, 이상렬 노래, 아래는 틀린 말을 쓴 예다.), 목이 메인 이별가를 ---(제목:비 내리는 호남선, 손로원 사, 박춘석 곡, 손인호 노래), 정들자 이별의 고동 소리 목메어[목메여] 운다.(제목:이별의 인천항, 세고천 사, 전오승 곡, 박경원 노래, 가사는 '목메어'인데 가수는 '목메여'라 불렀다.), 기적도 숨이 차서 목메어[목메여] 울고 가는 ---(제목:추풍령, 전법성 사, 백영호 곡, 남상규 노래), 안녕 안녕 목 메인 한 마디.(제목: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외국 곡, 양희은 노래), 가고파 목이 메어[메여] 부르던 이 거리는 ---(제목:돌아와요 부산항에, 황선우 사·곡, 조용필 노래, 가사는 '메어'로 맞는데, 가수는 '메여'라 부른 것으로 기억하는데, 재확인하지 못 했다.), 목메이게 불러보는 ---(98.12.21.22:20 K1TV '가요 무대' 제목:당신만을 사랑해, 가수:혜은이, 목메게), 목메이게 불러봅니다.(제목:잃어버린 30년, 박건호 사, 남국인 곡, 설운도 노래), 그리운 마음 따라 아쉬운 미련 목메이게 부르는 이름.(제목:돌아와, 전우 사, 원세희 곡, 박우철 노래)

물들은: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제목:두 개의 작은 별, 외국 곡, 가수:트윈폴리오, 물든), 황혼 빛에 물들은 여인의 눈동자.(제목:해변의 여인, 박성규 사·곡, 나훈아 노래)

바람[望]: 우리의 바람이었소.(제목:만남, 가수:노사연, 바람)

반딧불: 물 소리 까만 밤 반딧불 무리.(제목:일기, 오세복 사·곡, 둘 다섯 노래, 아마 '물소리. 까만 밤' 일 테니 이 점은 차치하고, '반딧불'은 개똥벌레의蛹무니에서 반짝이는 불빛을 이르니 '반디/개똥벌레'가 적확하다.)

(잔치를) 벌렸네/벌려 보자:잔치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 벌렸나(가수:봉봉 사중창단, 벌였네/벌였나), 촛불 잔치를 벌려 보자. 촛불 잔치야.(제목:촛불 잔치, 가수:이재성, 벌어야)

번지르한: 번지르한 걸모습 거기에 속지 마.(제목:999, 가수:배일호, 번지르르(=미끄럽고 윤이 나는 모양)한)

벼개: 푸른 잔디 벼개 삼아 --- (제목: 흙에 살리라, 가수: 홍세민, 벼개)

병(病)들은: 병들은 내 사랑은 한숨 뿐인데. (제목: 보슬비 오는 거리, 전우사, 김인배 곡, 성재희 노래)

부풀은: 실바람은 불어와 부풀은 내 가슴. (제목: 우리 사는 이곳, 가수: 신헌원, 부분), 부풀은 열아홉살 순정 아가씨. (제목: 금산 아가씨, 김운하 사, 이철혁 곡, 김하정 노래), 당신 생각에 부풀은 이 가슴. (제목: 살짜기 읊서예, 김영수 사, 최창권 곡, 패티김 노래)

살으리라/살으렵니다: 청산에 살으리라 (제목: 청산에 살리라, '살리라' 인데 노래를 재확인하지 못 했다.), 아름다운 서울에서/서울에서 살으렵니다. (제목: 서울의 찬가, 길옥윤 사·곡, 패티김 노래, 살립니다)

설레어 주나: 안타까운 이 심사를 설레어 주나 (제목: 맹꽁이타령, '설레어 주나' 나아가 '설레게 해 주나' 라야 맞는데, 방송에서 들은 것으로 가사 원문은 확인하지 못 했다.)

설레이는/설레임 등: 운문에서 '설레임, 설레는' 을 꼭 틀렸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지만, 대중 가요의 영향력이 짝 클 뿐 아니라 '설레는' 이라 해도 노래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론한다. '설레는' 이라 부르는 노래가 애창되는 것은, 쓸데없이 '이/으' 등을 넣지 않고 바른 말을 써도 가요를 만들고 부르는 데 아무 지장이 없음을 잘 보여준다.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제목: 고향역, 임종수 사·곡, 나훈아 노래), 설레는 마음 아가씨 마음 (제목: 십오야: 손석우 사·곡, 와일드 캐츠 노래, 아래는 틀린 말을 쓴 예다), 봄이 왔다고 설레이네. (제목: 아랫마을 이쁜이: 박춘석 사·곡, 남진 노래), 설레이는 마음 어찌나! (가수: 김상희), 만나는 설레임에 마음 부푼 사람도 --- (제목: 공항 대합실, 박춘석 사·곡, 문주란 노래, 설렘), 설레이던 마음도 기다리던 마음도 --- (제목: 허공, 정욱 사, 정종송 곡, 조용필 노래)

셋셋세(せつせつせ): 아침 바람 찬 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리기. (일본에서 온 동요로, '셋셋세' 는 음조를 고르는 후렴구니 ' 짹짹/야야야/나나나/라라라' 등으로 고칠 말이다.)

소개시키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줘(제목: 소개해 줘)

-스런: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랑스런 그대.(제목: 사랑스런 그대, 이경석 사·곡, 윤형주 노래, 노래라서 음정, 박자 등에 따라 글자 수에 제한을 받아 '-사랑스런'으로 줄일 수도 있겠지만, '사랑스러운'이 적확하고 더 사랑스럽다.), 예전에는 너와 나, 다정스런 친구로만 알았네.(제목: 밤에 떠난 여인, 김성진 사·곡, 하남석 노래, 다정스러운),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제목: 누이, 가수: 설운도)

시들으면/시들은: 피었다가 시들으면 --- (제목: 기타 부기, 가수: 윤부길(?), 시들면), 시들은 장미꽃, 이 마음 따라 우네.(제목: 사랑했는데, 손석우 사·곡, 이미지 노래, 시든)

싱그런: 달무리 지는 창문을 열면 싱그런 바람.(제목: 축제의 노래, 가수: 트윈폴리오(송창식·윤형주), 싱그러운)

쓰라리는: 쓰라리는 내 가슴에 이슬비는 내리네.(제목: 아마도 빗물이겠지, 정풍송 사·곡, 이상렬 노래, 형용사는 진행형을 쓸 수 없다. 가사는 '쓰라리는'인데 노래도 이렇게 부르는지는 확인하지 못 했다. 쓰라린)

(품에) 안기운: 님의 품에 안기운 짧은 행복에 --- (제목: 동숙의 노래, 한산도 사, 백영호 곡, 문주란 노래, 여기에서 '안기다'는 자동사로 님의 품 속에 든다는 뜻이니, '안긴'이 적확하다)

안절부절했었지: 안절부절했었지.(제목: 한동안 품했었지, 노래: 산울림(?), 안절부절 못했었지)

- 앓을: 이 마음 그대 생각 앓을 것을.(제목: 사랑의 송가, 세고천 사, 전오승 곡, 한명숙 노래, '아니하다(앓다)'는 용언 아래에 쓰인다. 생각 안할)

어머님: 흰 머리 잔 주름이 늘어만 가시는데/근심으로 지새우는 어머님 마음(제목: 모정의 세월, 신봉승 사, 박정웅 곡, 한세일 노래, 지금 살아 계신 어머니를 노래한 것이니, '어머님'이 적확하다. '지새우다'는 타동사니까 목적어를 수반해야 하지만 '밤을'이 생략된 것이겠다.)

옛같이: 앞산과 시내는 옛같이 푸르고, 하늘도 맑은데 --- (제목: 오라, 작사·작곡: 현제명, 옛같이)

오지랍이: 아낙네들 오지랍이[오지라비] 마를 날이 없구나.(제목: 서산

갯마을, 김운하 사, 김학송 곡, 조미미 노래, 가수도 '오지랍'으로 발음하지만 가사도 이렇게 나와서 이 항에 넣었다. '오지랴이[오지라피]'다.)

으시대다: 멋쟁이 높은 빌딩 으시대지만 --- (제목:님과 함께, 고향 사, 남 국인 곡, 남진 노래, 작사자와 가수 중 누구 잘못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으시대다'는 '으스대다(=어울리지 않게 으쓱거리며 뿔낸다.)'의 잘못이다.)

자육: 지나온 자육마다 눈물 고였소.(98.12.21.22:55 K1TV '가요 무대' 제목: 번지 없는 주막, 노래:고대원, 자육)

잠들은: 노들 강변 언덕 위에/잠들은 전우야.(제목:전우야 잘 자라, 유호 사, 박시춘 곡, 현인 노래, '노들'은 서울 노량진의 옛이름이다. 잠든), 모두들 잠들은 고요한 이 밤에 --- (제목:그건 너, 이장희 사·곡·노래)

점잖하신: 유모어는 없어도 너털웃음은 점잖하신 사장님 타입이지만 --- (제목:경상도 청년, 월견초 사, 전오승 곡, 김상희 노래, 점잖은)

정들은: 여고 시절 3년 동안 정들은 자주색 가방.(제목:자주색 가방, 가수:방주연, 정든)

(슬픔에) 젖어: --- 슬픔에 젖어/하염 없이 걷고 있네.(제목:밤비 내리는 영동교, 가수:주현미, 젖다는 '물이 묻어 축축하게 되다, 무슨 일이 버릇이 되다, 귀에 익다'는 뜻이니 속속들이 배어든다는 말인 '절다'라야 한다.)

정오(正午): 기미년 3월 1일 정오.(제목:3·1절 노래, 작사:정인보(?), '정오'는 일어식이고 우리말은 '오정(午正)'이다.)

조개 껍질: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노래:김세환, '껍데기(>꺅데기)'는 달걀이나 조개 등의 껍을 썬 단단한 물질이나 속에 무엇을 채우고 그 껍을 썬 것을 말하고, '꺅질(>꺅질)'은 딱딱하지 아니한 무른 물체의 거죽을 싸고 있는 질긴 물질의 켜(=포개어진 물건의 층)를 이른다. '달걀 꺅데기, 조개 꺅데기, 이불 꺅데기, 사과 꺅질'처럼 써야 한다.)

-지(형용사) 앓는가?/앓느냐?: 자네도 지금 힘들지 앓는가?(제목:친구, 가수:남일해, 힘들지 앓은가), 가는 세월 잡을 수는 없지 앓느냐?(제목:봉선화 연정, 가수:현철, 없지 앓으나)

-지다: 싸여진 옛이야기 잊을 수 없다네.(제목:추억, 이필원 사·곡·노래,

짜인)

지새우다: --- 하얗게 지새우는 밤.(제목:춧불 잔치, 이재성 사·곡·노래, 여기에서는 자동사처럼 썼으나 '지새우다(=밤을 고스란히 새우다.)'는 타동사요, '지새다'는 자동사다. '긴 밤 지새우고 --- (제목:아침 이슬:김민기 사·곡, 양희은 노래)'에서는 '긴밤을'의 '을'이 생략되었겠으나, 이 노래는 뒤에 '밤'이 나온 것으로 보아 '밤'이 생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쪼름한: 쪼름한 바닷바람 한도 많은데 --- (제목:서산 갯마을, 김운하 사, 김학송 곡, 조미미 노래, '쪼름하다'는 없는 말이다. 째쪼름한(=약간 짠맛이 있는))

차거운: 차거운 네 눈길에 얼어 붙은 내 발자국 --- (제목:이루어 질 수 없는 사랑, 외국 곡, 양희은 노래, 차가운)

청굴이: 파랗게 익어가는 포도 열매/청굴이 무르익은 열매.(제목:청포도 사랑, 이화춘 사, 나화랑 곡, 도미 노래, 가수도 이렇게 부르는데 사전에도 없는 '청굴(이)'가 무슨 말인지 펍 궁금하다. 혹 청굴(靑橘=익지 않은 푸른 귤)인지도 모르나, 만약 그렇다면 포도와 귤은 익는 시기가 달라서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

패인: 가슴 속에 깊이 패인 그리움만 남기고 --- (제목:미스 고, 가수:이태호, 패인/팬)

푸러요: 광야는 넓어요/하늘은 또 푸러요.(제목:행복의 나라로, 한대수 사·곡·노래, 그 외 가수:김민기, 양희은 등, '푸러요'는 근거 없는 말로, '푸르다'는 '러 불규칙' 형용사니까 '푸르러요'라야 한다.)

푸른 창공: 푸른 창공에 로프 던질 때 --- (가수:김홍철, '푸른 창공'은 중복 표현이니 '창공'이라야 하지만, 우리말의 특성상 '역전앞'처럼 꼭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다.)

할말을 잇다: 당신의 고운 눈매에 할말을 잇었지마는 --- (제목:잃어버린 정, 김중순 사·곡, 김수희 노래, 기억해야 할 것을 생각해 내지 못했다기보다, 고운 눈매 때문에 그만 마음 속에 가졌던 것이 사라졌다는 뜻으로 써서 '잃었지마는'이 더 좋다고 본다.)

행복하여라: 부디부디 행복하여라.(제목:못난 내 청춘, 김용만 사·곡, 현철 노래, 형용사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쓸 수 없다.)

해매이는/해매인다/해매임 등: 타관 땅 들고 돌아 해매는 신새.(제목: 꿈에 본 내 고향, 박두환 사, 김기태 곡, 한정무 노래), 내잎 크로바 찾으려고 해매는 마음/내잎 크로바.(제목:내잎 크로바, 이인선 사, 김영종 곡, 이규황 노래), 천리타향 낮선 거리 해매는 발길.(제목:머나먼 고향, 박정웅 사·곡, 나훈아 노래), 누구를 못잊어 그렇게 해매나/누구를 찾아서 한없이 해매나.(제목:마른 잎, 신중현 사·곡, 장현 노래, 아래는 틀린 말을 쓴 예다), 화약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해매일 때 --- (제목:단장의 미아리 고개, 반야월 사, 이재호 곡, 이혜연 노래, 해매), 바다를 해매이는 철새들처럼 --- (제목:마도요, 박건호 사, 조용필 곡·노래), --- 찾아 해매이는 가을비 우산 속에 이슬 맺힌다.(제목:가을비 우산 속, 가수:최현), 당신을 그리며 해매이었소.(제목:먼 데서 왔수다예, 김기팔 사, 황문평 곡, 이상렬 노래, 해매이었소), 안개 속에 해매이는 외로운 등불이여.(제목:꽃바람, 양근승 사, 조용필 곡·노래, 해매는), 그림자/내 모습은/거리를 해매인다.(김상옥 사, 서유석 곡·노래, 해매나), 하염없이 해매이네. 밤비 내리는 영동교(제목:비 내리는 영동교, 정은이 사, 남국인 곡, 주현미 노래), 해매임 딛고 널 지켜줄 때까지 --- (제목:아껴둔 사랑을 위하여, 가수:인순이, 해매)

해일: 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 (제목:동백아가씨, 백영호 곡, 이미자 노래, 해일)

홍겨웁게: 꽃노래도 홍겨웁게 미역 따고 밀감을 따는 --- (제목:서귀포를 아시나요, 정태권 사, 유성민 곡, 조미미 노래, 홍겨웁게)

색스폰(Saxophone): 울어라 색스폰아.(제목:댄서의 순정, 김영일 사, 김부해 곡, 박신자 노래, 색스폰)

### 3) 표현

어색하거나 틀린 표현을 예시하고, 알맞은 표현을 뒤에 보인다. 작사(시)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문학적 표현을 두고 문맥이나 어법을 강조할 수 없으므로, 지적을 위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를테면 '불어라 바람아/드높아라 파도여/파도여.' (제목:무인도, 이

종택 사, 이봉조 곡, 김추자 노래)에서, '드높다'는 형용사라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쓸 수 없으니 '드높아라'는 감탄형으로 쓴 것일 게다. 그러나 문맥으로 보면 '불어라'에 맞추어 '드높아라'를 동사로 쓴 것 같다. 그렇다면 '드높게 해!' 정도가 좋겠지만, 이는 작사자의 의도나 감흥을 배제한 지적이다. '아버님 전에/어머님 전에/밤 새운 마고자를 부치옵니다.(제목:일자 상서, 반야월 사, 박시춘 곡, 김부자 노래)의 '밤 새운 마고자'도, '밤 새워 만든 마고자'를 운문이라 풀어 쓸 수 없으니 이처럼 표현한 것이겠다. 미처 작사자를 확인하지 못 했을 때는 가요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가수를 표기한다.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 (작사:이원수, '나의 살던'은 일어식 표현이다.)

그대 그리고 나: 푸른 파도를 가르는 흰 돛단배처럼, 그대 그리고 나/ 텅 빈 마음을 달래려 고개를 숙이던, 그대 그리고 나.(가수:소리샘, '돛단배처럼' 어쨌다는 말인지, 두 구절을 이어서 읽는다 해도 '파도 위의 흰 돛단배처럼 텅 빈 마음'이란 어떤 상태인지 알른 이해하기 어렵다. 시적인 표현임을 감안하더라도 좀 아리송하다.)

그 사람이 그 사람: A라는 사람을 사랑을 하고 B라는 사람도 사랑했지만 --- (가수:송대관, 외국인만을 사랑했나?)

님이 오시는가: 갈숲에 이는 바람, 님의 발자취가?(가곡, '바람'과 맑은 흔적이나 종적인 '발자취'는 전혀 연관되지 않는다. 아마 '발소리'란 뜻으로 썼겠지만, 이는 이른바 '문화적 허용'과는 거리가 멀고, 우리말에 대한 무지라고까지 할 수 있겠다. '님→임'이지만, 시에서 이를 지적할 수는 없다.)

몰래 한 사랑: 그대여/햇살이 영그는 가을날 뚝에 앉아서 --- (가수:김지혜, '영근다'는 '여몰다'의 비표준어다. 씨가 익어 단단해지거나, 일이 잘 되어 탈이 없거나, 사람이 헤프지 않고 단단할 때 '여몰다'고 한다. 시적 표현이겠지만, 햇살이 점점 강해진다는 말인지, 가을이라 햇살도 익어 간다는 말인지(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는 모호하지만), '햇살이 영글다(여문다)'는 표현은 이해하기 어렵다.)



백마야 울지마라: 인생을 새 희망에 바라며 살자.(강영숙 사, 전오승 곡, 명국환 노래, '인생은(에) 새 희망을 바라며 살자' 정도로 고칠 惡文이다.)

삼팔선의 봄: 눈 녹인 산골짜에 꽃이 피어나.(김석민 사, 박춘석 곡, 최갑석 노래, 전방 경계를 위해 눈을 일부러 녹였다는 말일 수도 있으나, 문맥으로 보아 '녹인'은 '녹은'의 잘못된 非文이다.)

솔개: 우리는 말 안하고 살 수가 없나/날은 솔개처럼//소리 없이 날아가는 하늘 속에/마음은 가득 차고.(제목:솔개, 윤명환 사·곡, 이태원 노래, 하늘 속에 마음이 가득 차는 게 어떤 건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 시적인지, 현학적인지, '하늘'과 '마음'이 바뀐 건지 참 판단하기 어렵다.)

아빠의 칭찬: 돈 있어야 제일이지 없으면 산통.(반야월 사, 손목인 곡, 오기택 노래, 算筒은 장님이 점을 칠 때 쓰는 산가지를 넣는 통인데, '산통(을) 깨다'로 써야지 '산통'만으로는 뜻이 모호하다.)

옛사랑: 고요하고 어두운 밤이 어스레한 등불의 밤이 --- (백순진 사·곡, 사월과 오월 노래, '어스레하다'는 대중 가요에서 참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말이다. 그런데 '어스레하다(준:어슬하다)'는 날이 조금 어둡하다는 뜻이니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다. 아주 깊은 밤의 희미한 등불이라는 뜻이므로 '어슴푸레한(=아주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희미하게 흐린)'이 적확하겠다.)

이별이 주고 간 슬픔: 이별이 안아다 준 쓰라린 상처가 --- (박춘석 사·곡, 이현 노래, 특별한 의도가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안겨(다) 준'이 적확하다.)

해조곡: 굽도리 선창가에 안개 젖는데 --- (이부풍 사, 손목인 곡, 이난영 노래, '굽도리'는 방안 벽의 아랫도리를 이르니 '굽도리 선창'은 아랫벽만 있는 선창인가? 아니면 물이 굽어도는가? 고유 명사인지도 모르겠다.)

황성옛터: 끝없는 꿈의 거리를 해매어 있노라.(왕평 사, 전수린 곡, 이에리수 노래, 해매고 있노라)

비 오는 낙동강에 저녁 노을 질어지면(물들으면) --- (가수:이미자, 시적 감흥을 배제하고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비가 오는 중이면 놀이 질어지는지 알기 어렵다. 물론 '물들으면→물들면'이다.)

## 2. 映書

필자의 앞선 글에서 일단을 보였듯이, 영화 번역자와 자막 쓰는 사람의 오류가 너무 심하다. 더빙(dubbing)할 때 자주 틀리는 성우의 발음 문제는 필자의 다른 글에서 간단히 짚어보았으므로 생략한다.

여기에서는 영화 제목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내게 거짓말시키지 마(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으로), 아버지를 설득시켜라, 널 소개시켜 줄까?' 같은 말은 성립할 수 없는 데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줘(02.8.)' 같은 말을 예사로 쓴다. 'Deliverance'를 '서바이벌 게임'으로 방영하듯이(99.7.4. K1TV), 원제를 바꾸어 방영하는데 왜 굳이 외국어로 제목을 붙이든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요즘 '왓 위민 원트(What women want), 유브' 갓 메일(You've got mail), 애딕티드 러브(Addicted Love), 인섬니아(insomnia), 40테이즈 40나이트(40Days 40Nights)(02.5.), 위 위 솔저스(WE WERE SOLDIERS)(02.5.), 디 아이(the eyes)(02.7.), 디 아더즈(The Others)(02.8.), 피어닷컴(feardotcom)(02.8.)' 식의 멋없고 수수께끼 같은 영화 제목이 많다. 근래 들어 심해진 현상인데, 영화 제목을 통해 영어 공부 시킬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 뜻 없이 외국어를 소리나는 대로 쓰는 일은 삼가야 한다. '톤 커튼'이 아닌 '찢어진 커튼(원제: Torn Curtain)'(01.9.16. K1TV '영화극장' (히치콕 걸작선(3))이라야 뜻도 얼른 알 수 있다. 원제보다 '파계(破戒)(The Nun's Story)', '모정(慕情)(Love is a many splendid thing)', '애수(哀愁)(Waterloo Bridge)', '새벽의 七人(Daybreak Operation)' 같은 제목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필자만의 편견인지 궁금하다. '다이알 M을 돌려라(Dial M for Murder)'(00.4.9. K1TV 방영)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최근 우리 영화도 '텔미썸딩(Tell me Something)(99.11.13. '썸딩→썸싱' 임.), 인디안 썸머(Indian Summer)('썸머→서머' 임.), 오버 더 레인보우(over the rainbow)('레인보우→레인보' 임.), 폰(phone)' 같은 영어 그나마 표기법도 틀린 제목이 증가하고 있다. 이 영화들은 대개 그대로 TV에 방

영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TV에서 방영한 영화와 영화 소개 신문 기사를 위주로 몇 예를 보인다.

화이널 카운트(원제:Strategic Command)(01.8.12. MBC TV '일요 심야 극장')

새도우 프로그램(원제:Shadow Conspiracy)(01.8.26. MBC TV '일요 영화', 원제를 바꾸면서까지 외국(래)어를 쓰는 현상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새도우→새도'다.)

룰스 오브 인게이지먼트(원제:Rules of Engagement)(01.9.8. MBC TV '주말의 명화', 뜻도 알기 어려운 말을 소리나는 대로 쓴, 멧없는 제목이다. 차라리 '교전 수칙' 정도가 나올 듯싶다.)

어비스(원제:Abyss)(01.9.15. MBC TV '주말의 명화', '어비스'의 뜻을 아는 시청자가 얼마나 될지 참 궁금하다.)

베스트 키드(원제:The Karate Kid)(02.8.4. K1TV '남량 특선 영화')

록 스타크 앤 투 스모킹 배럴스(원제:Lock, Stock & Two Smoking Barrels)(02.10.19. MBC TV '주말의 명화')

런어웨이 브라이드(원제:Runaway Bride)(02.10.19. K2TV '토요명화')

키스트(원제:kissed,)(00.6.29. 조선 B 기자, 영화 소개, 구태여 제목을 우리말로 읽는다 해도 '키스트'라야 옳다.)

혹성탈출(惑星脫出)(01.7. 영화 제목)( '惑星→行星'이 우리말이다.)

"안 다쳤어요?"/"아니, 괜찮아."(99.8.7.23:00 K2TV '명화 극장(탈주자)', 두 남자의 대화인데, 우리말식의 대답이 아닌 직역이다.)

내겐 너무 이쁜 당신(영화 제목, '너무'는 뒤에 부정어가 온다.)

"--- 누군가는 대가를 치뤄야 ---"(01.8. 영화 '미멘토(mimmento)', 치러야, 번역의 문제다.)

"--- (기억상실증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바보 취급을 당하기 싫어 심지어 의사에게도 아는체를 했죠."(01.8. 영화 '미멘토(mimmento)', 알은체를 했죠.)

### 3. 廣告 · 商品名

광고의 문안(카피(copy))은 유행어가 될 정도로 영향력이 큰데도 오류가 많다. 출연 배우(성우) 같은 광고 모델(model)의 발음도 틀린 게 많다.

외국(래)어 상품 이름이 너무 많고, 그나마 틀리거나 어색한 말을 쓰는 일도 있다. 몇 예를 보여 흔히 틀리는 말을 점검하여, 광고 제작자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 방송을 앞에 보이고, 바른 말을 부기한다.

“당신은 지금 생명을 밟고[발꼬] 있습니다.”(98.10. K1TV/MBC TV 음주 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 광고, 목소리 출연 성우(남), [밥:꼬])

“브레이크 페달을 확실히 밟고[발:꼬] 시동을 거십시오.”(99.8.5. K1TV 급발진 사고 방지를 위한 공익 캠페인 비 성우(남), ‘거십시오→거십시오’ 다.)

“석유 냄새 없는 레이드, 밟기[발:끼]만 해도 신경이 마비되어 죽습니다.”(00.4.22. 바퀴벌레 죽이는 약 광고, 목소리 출연 성우(?) (남), [밥:끼])

“잘 익은[자-리근] 인생의[에] 향기”(00.4.22. 매취 순(술) 선전, 목소리 출연 성우(남), 조사 [의]를 [에]라 해도 되지만, 허용 발음보다는 되도록 [의]로 발음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잘-리근])

“내가 성:을 같아요. 성을.”(00.6.28. KTV LG정유 시그마6 광고, 텔런트 최진실, ‘姓, 性’ 다 장음인데 장단음을 혼용했다.)

“잘 익었다[차리견따]!”(00.11.4. MBC TV 청정원 가나리 액젓 광고, 텔런트 고두심(여), [잘리견따])

“요새는 잘 익은[자리근] 맛, 덜 익은[더리근] 맛 ---”(00.11.29. MBC R 삼성(?) 김치독 광고 성우(여), [잘리근], [덜리근])

“오! 안 익었어[아니겄썸]. 김치는 김치 냉장고에 ---”(02.10.30. SBS TV 하이마트 광고, 텔런트 사미자(여), [안니겄썸])

“전 친구 때문에 모처럼 좋은 술을 마셔보았습니다.”(00.4.16. MBC R 술 선전, ‘덕분’이 적확하다.)

“--- (신장 필터 원리의) 생수기라 틀리네.”(00.4.21.22:50 K1TV(?) 코롱 생수기 광고, 가수 김창완, 다르네.)

“바르면 티가 나요.”(00.8.1.21:50 MBC TV 가르시아 화장품 광고, 텔런트 채시라(여), ‘티’는 어떠한 色態나 기색 또는 버릇을 뜻하는 말로 의존명사라 단독으로 쓸 수 없다. ‘선생 티가 난다.’ 같은 말을 상기해 보면 좋겠다.)

“찰지고 기름진 밥맛!”(00.11.4. MBC TV 밥술 광고, 목소리 출연 성우(여), ‘반죽이 차지다’처럼 끈기가 많거나 끈기가 많은 성질을 지니고 있을 때는 ‘차지다’라 한다. ‘찰지다’는 ‘차지다’의 경상 방언이다.)

“--- 알맞은 용기(容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01.7.22.18:00 제주 MBC TV ‘제주 MBC’와 ‘가스 안전 공사’의 공익 광고, 목소리 출연 성우(남), 알맞은)

“맛있는 김치 쉽게 담은 비결을 찾아라!”(01.1.17. MBC TV ‘하선정 액체 육젓’ 광고, 개그맨(gagman) 이창명, ‘담그는’이 옳다. 빨랫감을, 육조에는 ‘담고’ 육젓물에는 ‘담근다’. 더운 물에 쌀을 ‘담그고’, ‘담근’ 김치를 독에 ‘담는다’.)

“일석이조네.”(01.8.15.17:40 MBC TV 페리카나 치킨 광고, ‘일석이조(一石二鳥)’는 막부 말기에 일본에서 만든 성어나, 어감은 좀 다르지만 ‘일거양득(一舉兩得)’으로 고칠 말이다.)

“역시, 맘마릴 하나면/딱 이에요”(00.5.13. 한국, 널리 쓰이는 ‘딱이다’가 옳은 말인지는 차치하고, ‘딱이에요’가 바른 표기다.)

칭찬 속에 담긴 바램/착한 사람들은 기억하겠습니다(「샘이 깊은 물」(00.7월) 해찬들 광고, 바람)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 사명을 띄고 태어났다. --- 다시 한번 자각하고 그에 걸맞는 본연의 사명에 --- (00.12.9. 동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일동의 광고, 제목 “EBS는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박탈하려고 하는가?”, 띄고, 걸맞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01.6.2. 중앙 황주리 신작 에세이 광고, ‘너무’는 뒤에 부정어가 와야 한다.)

청호나이스/“오너쉽서비스”//물이 틀립니다(01.7.16. 중앙 20면 청호나이스 생수기 광고, 오너쉽→오너십, 틀립니다→다릅니다)

--- 이 땅의 민초들에 의해 축적된 이야기들이 --- (01.8.29. 문화 2면 ‘종합’ 열음사 간, 소설 ‘압록강’ 광고에서 인용한 김수경(소설가)의 글, ‘민초(民草)’는 일어인데도 남용하고 있는 실정을 보이기 위해 예시한다.)

인간답게 살지는 못했는지 몰라도 참으로 인간스럽게 살다가 죽은 한 남자의 이야기!(01.9.29. 동아 A7면 ‘오피니언’ 하단 들녘출판사, 안정효의 소설 ‘미늘의 끝’ 광고, ‘인간답게’ 사는 것과 ‘인간스럽게’ 사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 참으로 ‘곤혹스럽다’.)

첫 출발, 그 설렘과 함께 합니다.(01.2.20. 현대 백화점(무역센터점) 광고지, 설렘)

You First(01.9.16. MBC TV 현대증권 광고 문안, ‘After You’라야 옳다.)

Made in 20/Made in Earth(T 휴대 전화/컴퓨터 회사 광고 문안, ‘20대들이 만든 것’이라면 ‘Made by 20’s’, ‘20대를 위한 것’이라면 ‘Made for 20’s’라고 해야 좋을 것이다. 지구에서 만들었다면 ‘Made on Earth’가 낫겠지만 그 의미 전달은 실패한다. 전 지구를 향해 판매하겠다는 뜻일까?)

2) Cf. 01.11.12. 한국 ‘임귀열의 현지영어 정통영어’

당신은 메인입니다(01.11.18. K이동통신 광고 문안, '메인' 밑에 'Main' 이라고 병기했는데. 굳이 이런 말을 써야 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Buy Korea(한국투신 광고 문안, 'Buy Korea'는 한국이란 나라를 팔겠다는 뜻이니, 구태여 쓰려면 'Buy Korean' 이라야 옳다.)

수타면(상품(라면) 이름인데, '手打'는 일본어다.)

88플러스(Plus), 88디럭스(Deluxe), 88라이트(light), 88골드(Gold), 88멘솔(menthol), 엑스포(EXPO), 오마샤리프(OMA SHARIF), 글로리(GLORY), 심플(Simple), 디스(플러스)(THIS (Plus)), 라일락(멘솔)(lilac (menthol)), 콤팩트(COMPACT), 갯투(Get 2), 에세(ESSE), 리치(RICH), (타임리스) 타임(timeless) time), 마운트 클래스(MOUNT CLASS), 시마(cima), Lumen, RAISON 등(우리나라 담배의 이름이다. 담배는 담배인삼공사에서만 만들 수 있었다. 설령 수출을 염두에 두더라도, '백양, 아리랑, 새마을, 청자, 환희, 은하수, 거북선, 태양, 장미, 술, 도라지, 한라산, 하나로, 시너브로, 한마음' 등의 우리말 담배 이름과 대비해 볼 일이다.)

언제 어디서나 한국인은/애니콜(anycall)(99.7.20. 동아 삼성 휴대 전화 광고 문안, '애니콜(AnyCall)'이 고유명사이기는 하지만 영어를 병기했으니 '애니콜'이 적확하다.)

SENSE/센스(고추장 상표, '신세대 고추장'은 영어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으나 그나마 '센스'라야 한다.)

SK케미칼(회사명, 'SK케미컬'이 옳은 표기다.)

화이브 미니(음료수 상표, '파이브'라야 맞다.)

#### 4. 看板 · 標識

일상생활에서 늘 대하는 간판이나 표지판의 잘못된 표기나 단어는 아주 많지만 무심코 넘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특히 공공 기관의 각종 표지는 신중하게 적을 일이다. 상점 간판은, 이를 모두 검토하는 일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으니 한 예만 보인다. 이를테면 '김치찌개, 떡볶기, 설롱탕, 육계장, 잣죽, 차들백이'까지 일일이 예시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재떨이 --- 사용 후에는 필히 물을 흘려 주십시오(99.8.10. 제주 시청 남자

소변기 위의 표지, 붙어 있는 것을 흔들거나 털어서 떨어지게 하는 일은 '떨다'라 하니 '재떨이'라야 옳다. '주십시오→주십시오.'다.)

재떨이(99.11.16. 김포 공항 국내선 휴지통)

옥수사/다마쓰시, 이수사(99.11.15. 서울 소재 일식 음식점들의 간판인데, 한자를 단순히 한글로만 쓰는 일은 자칫 어설피지기 쉽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쓰시'는 '스시(すし)'의 잘못이다. '수사'는 '壽司'고, '옥, 이'는 '玉, 李'로 店主의 姓이다. '이수사'는 한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李壽司, Lee Sushi, りすし'라고도 썼는데 'りすし' 또한 재고해야 할 표기다.)

농협 카드로 현금 인출시 수수료: 없음(99.11. 농협 대치 지점의 표지(인쇄물), 없음)

--- 감사드립니다(00.4.15. 서울시 강남·서초 0·2 국회 의원 당선 사례 플래카드(placard), 명사에 이어지는 '- 드리다'는 보조 동사로 쓰인 것이 아닌 데다 문맥으로도 어색하다. '잘 부탁 드립니다'는 일어의 관용적 표현을 직역한 것인데, '- 드리다'는 여기에서 일상화하였을 것이다. 지금은 틀리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 드리다'가 이미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감사합니다'가 적확하다.)

월드컵 이대로 치를 순 없다(00.7.21. 현재, 제주 공항 탑승구 부근 공익 광고 전광판, 016.경에 보니 '치를'로 바르게 고쳐 놓아 반가웠다.)

선릉로/Sönnüng-ro, 선릉역/Seölleung Stn(00.7., 00.10. 서울의 도로 표지판, 'Seölleung'이 맞는 표기다. station의 약자는 'sta.'이지 'stn'이 아니다.)

자랑스런 민주 도시/자랑스런 전복을 만듭시다.(00.7.1. 광주 공항/00.12. 전라북도 도청 입구의 플래카드, '자랑스러운'이 적확하다.)

태능(T'aenüng)(00.8. 경기도의 도로 표지판, '태릉'이라야 한다.)

계단주의(01.1. 서울역 구내 층계의 표지, '계단'은 '층계'의 일본어이다.)

주의 사항! 승객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이용합니다.(01.8. 서울 대치역의 '자동 층계(에스컬레이터(escalator))'의 표지, 역무원은 승객 안전을 위하여 손잡이를 잡고 이용하라는 말이 아닐 테니 즉 이용하는 사람이 승객이니 '승객'은 필요 없는 말이다.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안전하게 이용합니다.'가 간결하다.)

재활용 가능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01.9. 서울시 강남구 쓰레기 봉투(제조:평야용역(주)), '오늘밤 11시 기대하십시오(01.4.22.10:00 MBC TV 프로그램 예고 자막)'처럼 쓰는 일이 많은데, '주십시오.'가 옳다. 그리고 문장이 끝나면 마침표(은점)를 찍어야 한다.)

포장구분 18개피1갑(알루미늄팩)(03.7.14. 동아. 신제품 담배 상패(제조원:

상대코리아주식회사) 가격 공고, 쪼갠 나무 토막의 조각을 세는 단위는 '개비'니, '담배 한 개비'처럼 쓴다.)

## 5. 用語

'교포/동포, 구정→설날, 동학란→동학혁명, 마니산(강화도 소재)→마리산, 민비→명성황후, 원조 교제→청소년 성매매, 6·25 (사변, 동란, 전쟁)과 한국 전쟁, 해녀(海女)→잠녀(潛女)/잠수(潛嫂), 2차 세계 대전→제2차 세계 대전('第'는 한자의 수 앞에 놓여 차례의 몇 제를 가리키는 말이니, 3차 세계대전을 전제로 하는 말이 아니면 '제-'를 빼야 한다.), 전쟁 미망인→전사자 부인, 정상인(正常人)→비장애인(非障礙人), 한반도, 해방→광복, 형무소(刑務所)→교도소(矯導所)' 등 수없이 많지만, 지면 관계로 서너 예만 검토한다.

① 전쟁 기념관: 서울의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이란 명칭은 재고해야 한다.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거나 오래도록 사적을 전하여 잊지 않게 하는 것이 '기념'인데,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기린다는 의미가 강하다. '회갑 기념 논문집, 기념 행사'처럼 쓰이고, '삼풍백화점 붕괴 기념 행사' 같은 말이 성립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쟁 기념관'이란 명칭도 같은 맥락이다. '기념관'은 '기념'하기 위해 세운 집 즉 뜻깊은 일이나 위인 등을 기념하기 위해 사적, 자료, 유품 따위를 진열하여 둔 집이다. 그래서 '유관순 기념관'처럼 쓰인다. 그런데 전쟁을, 회상할 만한 뜻깊은 일이나 전할 만한 사적이라 하기 어렵다. '전쟁'을 잊지 않기 위해 지은 집은 '기념관(memorial)'보다 '기록관(library)'에 가깝다. 특히 거의 매년 일방적으로 침략을 당한 피해자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전쟁 기념관'은 '전쟁 기록관(또는 전쟁관, 전쟁 박물관)'이 적확하다.

② 정상인(正常人), 비장애인(非障礙人): '장애인'에 대응하는 말은 '정



상인' 보다 '비장애인' 이 바람직하다.

“--- 어떻게 보면 정상인도 ---”(01.9.4. K1TV '클로즈업 오늘' 공동 진행자(남))

“--- 장애인과 정상인이 50여명이 수용돼 있습니다.”(02.7.22.40 K1TV 뉴스9 - 기자(남))

③ **자랑스런 박물관인賞**: 문화관광부와 박물관협회에서 제정한 상인데 (cf. 00.6.27. 동아) '자랑스러운 박물관인상' 이 적확하다.

④ **메스암페타민·필로폰·히로뽕(ヒロポン)**: '히로뽕' 은 '鹽酸메스암페타민(鹽酸메탐(담)페타민)(Methamphetamine)' 의 상품명으로 2차대전 중 일본에서 생산한 것인데, 결정성 가루로 물이나 알코올에 잘 녹는다. '히로뽕' 이 '필로폰(Philopon/philopon/Philophon)' 의 일본식 발음이 아니고, '필로폰' 이 '히로뽕' 의 영어식 표기다. 표제어와 영어 표기도 국어사 전마다 다르고 대부분의 영한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다. 어쨌든 '히로뽕' 이나 '필로폰' 은 상품명이므로 '메스암페타민' 이 바람직하겠으나, 처음부터 일본에서 만들어졌고 이미 굳은 말이므로 '히로뽕' 이 좋다고 생각한다. '메스암페타민' 이라 하지 않으면서 이를 구태여 '필로폰' 이라 할 이 유가 없다. 1986년에 '외래어표기용례 심의위원회' 에서 '히로뽕' 으로 정한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 본다.

⑤ **깨끗하자**: '아름다워라(명령형), 예쁘소서, 친절합시다' 같은 말은 성립할 수 없다. 형용사는 청유형, 명령형, 진행형으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날씨가 흐리고 있습니다.' 는 '흐려지고 있습니다, 흐립니다' 라야 한다. 이를테면 '참되자' 는 교훈이나 '친절합시다' 같은 프로그램(99.9. MBC TV)도 마찬가지다.

깨끗하자. 부지런하자. 그리고 책임 지키자(01.8.13. 조선 19면 '사람들' 제목: '연봉 24억' 윤윤수 필라코리아 사장 '생각의 속도가 빨라야 산다' 펴내, 본문:윤 사장이 책에서 밝힌 경영 비결은 의외로 간단했다. '깨끗하자. 부지런하자. 그리고 책임 지키자'.)

⑥ **관념하다, 자유하다**: 자유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증거하시니 ---('성경', '觀念, 證據' 도 명사로만 쓰이니 '관념하다, 증거하다' 역시

성립할 수 없다.)

⑦ DJ, MJ, TJ, YS 등: 'DJ, MJ, TJ, YS' 식의 英字 이름 표기(DJ·YS 회동 이후(00.5.11. 조선 14면 ㄱ 기자 제목))도 시정해야 할 이상한 풍조다.

### III. 結論

가요는 운문인 데다 구어이고 운율에 따라 말에 신축성이 있고 시적인 표현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틀리다고 단정할 성질은 아니지만, 대체로 불필요한 조음소를 많이 넣는데, 제대로 써도 전혀 지장 없는 노래가 많은 것을 보면 이는 일종의 타성이라고 생각한다. '되뇌이다, 물들은, 헤매이는' 같은 말은 물론, '그리웁구나, 살으렵니다, 흥겨웁게' 등도 마찬가지다. 가수의 발음 문제는 더 심각한데, 기본적인 발음마저 틀리는 일은 무관심과 공부 부족 탓이다. 가수는 취입 또는 공연 전에 국어사전을 한번쯤 확인하는 정도의 성의가 필요하다. 덧붙여, 혀를 잔뜩 꼬아 외국어처럼 발음하는 버릇도 자제해야 할 일이다.

영화 번역자와 자막 쓰는 사람의 오류, 성우의 발음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외국어를 소리나는 대로 쓰는 영화 제목이나, 원제를 바꾸어 방영하면서 다시 외국어로 영화 제목을 붙이는 일은 이해하기 어렵다. 광고 문안과 상품 이름에도 외국어가 너무 많다. 출연 배우(성우)의 발음은 물론이다. 간판이나 표지판의 틀린 말은 언중에게 큰 영향을 끼치니 쓰기 전에 꼭 검토하여 바른 말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전쟁 기념관, 정상인, 자랑스런 박물관인상, 메스암페타민·필로폰·히로뽕, 깨끗하자, 관념하다·자유하다, DJ·YS' 같은 말을 통해, 우리가 무심코 대하고 쓰는 말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았다.

대중 문화가 일반인에게 끼치는 영향이 꽤 크기 때문에, 각 분야 관계

자는 바른 우리말글을 쓰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한번 길든 언어 습관은 고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동아·문화·조선·중앙·한국·샘이 깊은 물(00.7월호)·KBS TV·MBC TV(Radio)·SBS TV·TBC TV
- 「홀려간 노래 대백과」(세광음악출판사, 1991)
- 임귀열, 임귀열의 현지영어 정통영어(01.11.12. 한국)
- 許椿, “放送 言語의 諸問題-發音의 混亂相”, 「인문학 연구」 제6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a.
- , “放送 言語의 發音 檢討-連音, 硬音”, 「인문학 연구」 제7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b.
- , “放送 言語의 發音 問題”, 「인문학 연구」 제8집(특집호),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a.
- , “韓國 放送의 外來語 發音 檢討”, 「동아시아연구논총」 제11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01b.
- , “國語辭典의 發音 表記 補完”, 「영주어문」 제3집, 영주어문학회, 2001c.
- , “우리말 ‘표준 발음법’ 보완”, 「어문학」 제74집, 한국어문학회, 2001d.
- , “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 檢討-틀리거나 어색한 말”, 「濟州島研究」 제20집, 제주학회, 2002a.
- , “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틀리거나 어색한 말, 표현의 문제”, 「瀛州語文」 제4집, 영주어문학회, 2002b.
- , “濟州 地域 新聞의 우리말글 論議-일(영)어의 잔재”, 「耽羅文化」 제2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2c.
- , “新聞의 우리말글 檢討-濟州 地域 新聞의 外國(來)語 誤·濫用”, 「인문학 연구」 제9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2d.
- , “우리나라 신문의 문장 검토”, 「瀛州語文」 제5집, 영주어문학회, 2003.